

TV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00 관촬카메라24시간(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특집 모닝와이드 1~2부
7 10 신대동여지도(재)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김치>	30 KBC 모닝와이드
8 15 굿모닝 A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앙코르 특집 다큐 <유배>	30 SBS뉴스특보 여객선 세월호 침몰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30 MBC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10 팩트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할간 자전거 55 튼튼생활체조	50 지구촌 뉴스		30 화첩기행 <죽보바다 위로 불이 피어오르고>
11 20 정치이야기 是非非	00 KBS네트워크 특선 숫자로 읽는 부산 남북소 55 바른말 고운말	15 사랑의 가족 45 인간극장 스페셜(재)	00 글로벌 비전	00 SBS뉴스특보 여객선 세월호 침몰
12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 12	55 생생 정보통 스페셜	00 특집 MBC 정오 뉴스	
1 30 뉴스 특급	00 열린채널 30 긴급출동 24시(재)		00 통일전망대 30	30 세월호 침몰 6일간의 기록
2 40 직언직설	05 한국인의 밥상(재)	00 한국 재발견	00 MBC 특수특보 진도해상 여객선 침몰	00 SBS뉴스특보 여객선 세월호 침몰 40 내마음의 크레프트 스페셜
3 50 정몽관의 시사방법	00 뉴스토크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 25 뽀빠야 놀자 55 TV 유치원 콩다콩	10 수빈스토리 40 헬로키즈 아하! 역사탐험대	10 특집 SBS 이슈인 사이드
4 50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시사진단 55 튼튼생활체조	25 애니월드 55 KBS 특선 다큐(재)	30 똑?똑! 키즈스쿨	0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도그래피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뉴스특보 여객선 세월호 침몰
6 00 김승현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시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생생 정보통	20 브리보 멋진 인생	
7 20 이영돈 PD의 맥거리X파일(재)	00 KBS 뉴스 7 30 러브인 아시아	50 일일 드라마 <천상여자>	15 일일연속극 <빛나는 로맨스> 55 MBC 뉴스데스크	20 일일드라마 <질기운 딸 하나>
8 30 갈매까지 가보자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정보통 플러스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엄마의 정원>	00 SBS뉴스특보 여객선 세월호 침몰
9 40 채널A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기획 창 50 콘서트 필	00 드라마 스페셜 <그녀들의 완벽한 하루> (최종회)	00 월화특별기획 <기황후>	00 월화드라마 <신의 선물-14일>
11 00 모큐드라마 <싸인>	30 KBS 뉴스 라인	10 다큐멘터리 3일	15 PD 수첩	15 심장이 뛰다
12 10 헬킵 투 시월드(재) ①:20 스타페스티벌	30 국악의 향기 ①:10 생활의 발견	00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세계의 모든 다큐	10 MBC 뉴스24 20 MBC 100분 토론	35 특집 나이트 라인 여객선 세월호 침몰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청개구리 길들이기>	14:45 미앤미로봇	19:30 EBS 뉴스
05:40 성공! 인생 후반전	10:10 EBS 문화 센터	15:00 초능력 특강대	19:50 극한직업(재)
06:10 명의 3.0(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큐 오늘
07:00 놀이터 구조대, 뽀인(재)	11:20 세계테마기행 <네덜>(재)	15:30 오아시스	20:50 세계테마기행 <파푸아뉴기니>
07:15 오스카의 오아시스(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댕둥댕둥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서해구기행>
07:30 풍선 코끼리 발루보(재)	12:10 뉴스포츠의 세계(재)	16:20 오스카의 오아시스	21:50 EBS 다큐프라임 <조선의 법과 정의 무궁무진>
07:45 뽀뽀뽀 뽀로로(재)	13:05 지식재널	16:30 놀이터 구조대, 뽀인	22:45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
08:00 댕둥댕 유치원	13:10 줄거은 수학 EBS MATH	16:45 골디와 친구들(재)	23:35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08:20 두디다(재)	13:20 외곽외곽 친구들	17:00 방구대장 뽀뽀(재)	24:05 지식재널(재)
08:35 방구대장 뽀뽀	13:30 꼬마 기사 마미	17:15 풍선 코끼리 발루보	24:10 세계 명작 극장 <다운트 버너>
08:50 골디와 친구들	13:45 치료와 친구들	17:30 뽀뽀뽀 뽀로로	01:20 시네마 천국
09:05 비오밤섬의 파오파오(재)	14:00 헬로 코코롱	17:45 비오밤섬의 파오파오	
09:20 부릉! 부릉! 브루미즈(재)	14:15 시계마을 티키토	18:00 생방송 특!톡! 보너하니	
09:35 뽀뽀	14: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19:00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재)	

EBS플러스1

00:00 올림픽스 평가문제집 <수학 I>(재)	12:10 5분 괴담·화학 I
00:50 <수학 II>(재)	12:15 수능특강 <수학 I A형>
01:40 올림픽스 <영어독해의 기본 I>	13:05 <수학 II>
02:30 <수학 I>	14:00 <국어 A형>
03:20 뉴 틴스런 <생활과 윤리>	14:50 <한국사>
04:10 <사회>	15:40 <동아시아사>
05:00 <한국사>	16:30 <세계사>
05:50 2013 포스 <수학 I B형>	17:20 <세계지리>
06:40 알옥탑스런 <화학 I>	18:10 <법과 정치>
07:30 2014 포스 <문학 I>	19:00 <생활과 윤리>
08:20 올림픽스 <영어독해 기본 I>(재)	19:50 5분 괴담·화학 I (재)
09:10 <수학 I>(재)	20:00 수능특강 <국어 A형>(재)
10:00 뉴 틴스런 <사회>(재)	21:00 <한국사>(재)
10:50 2013 포스 <수학 I B형>(재)	22:00 인터넷 수능 <회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B형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EBS플러스2

07:00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5:50 <수학 4-1>
07:30 친절한 수학 익힘책 5-1	16:20 <수학 5-1>
08:00 물류관리사 시험대비 강좌	16:50 <수학 6-1>
08:30 의학·치의학 약학 적성시험 대비강좌	17:20 민중의 평가문제풀이 <수학중 5-1>
09:00 줄거은 수학 EBS MATH	18:00 TV 중학 <영어 3-1>
09:10 TV 중학 <국어 1>	18:40 <수학 3-1>
09:50 <수학 1 상>	19:20 통합신공 <수학 3-1>(재)
10:30 <역사 2>	20:00 중학 중간·기말 시험대비 문제풀이 <사회 1-1>
11:10 <국어 3>	20:40 <수학 2 상>
11:50 <수학 2 상>	21:20 <과학 1-1>
12:30 통합신공 <수학 2 하>	22:00 <역사 1-1>
13:10 <수학 1 하>	22:40 TV 중학 <수학 1 상>
13:50 <과학 2 하>	23:20 중학포스 영문본2 <수학 2 하>
14:30 <수학 2 하>(재)	24:00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15:20 민중의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2일(음 3월 23일 癸亥)

子	36년생 제 눈섭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48년생 내버려 두는 것이 낫다. 60년생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72년생 관리에 소홀히 한다면 차질이 빚어지겠다. 84년생 묵묵히 자신의 길만 가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28, 73
丑	37년생 융통성을 발휘하여 과격적으로 처리해야 할 때다. 49년생 실기하면 아니 된다. 61년생 머지않아 적당하게 될 것이다. 73년생 좋은 일을 권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 85년생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할 수다. 행운의 숫자 : 52, 82
寅	38년생 천신만고 끝에 목적을 달성하고 매우 기뻐하는 모습이 니라. 50년생 철저히 대비해야만 이룰 수니라. 62년생 지극히 당연한 것이어서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74년생 충분히 예견 가능하리라. 행운의 숫자 : 68, 78
卯	39년생 그 자체로서의 의미에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1년생 과감한 행동이 절실한 때이다. 63년생 감지된 실황을 무시한다면 큰일도 비화 될 것이니라. 75년생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좋겠다. 행운의 숫자 : 86, 04
辰	40년생 여러 가지 결과물이 생겼으나 실속이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52년생 구우일모의 기회이다. 64년생 처열함의 강도에 따라서 좌우 될 것이다. 76년생 다양한 관점으로 조별해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93, 45
巳	41년생 제반사를 단순화 시키고 현실에 충실 하는 것이 생산적이나. 53년생 과욕만 하지 않는다면 고통은 없으리라. 65년생 확실하게 배제하는 것이 무방하다. 77년생 기발한 기법을 모색하는 기쁨이 있다. 행운의 숫자 : 17,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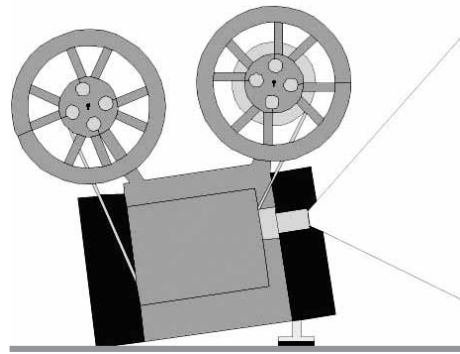
午	42년생 복합적인 효과를 보는 모습이다. 54년생 상응하는 형세이니 발전의 기쁨을 잡을 것이다. 66년생 천편일률적으로 인식한다면 결정적인 여건을 놓칠 수도 있다. 78년생 크게 영향을 받을 만한 일이 벌어지겠다. 행운의 숫자 : 46, 59
未	43년생 잘 준수해야 진행되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55년생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 하겠다. 67년생 상황이 변하면 대처 방안도 달라질 수밖에 없느니라. 79년생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새롭게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다. 행운의 숫자 : 24, 47
申	44년생 큰 희을 갖는 분수령이 되는 날이다. 56년생 평균적인 것이 가장 이상적인을 정확히 인지하라. 68년생 확실한 의사표시와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80년생 순간의 방심은 커다란 손해를 부른다. 행운의 숫자 : 10, 94
酉	45년생 힘들더라도 끝까지 참아내야만 하느니라. 57년생 제대로 주지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이변을 자초하는 동세가 돼버린다. 69년생 크게 자각을 받을 일이 생길 것이다. 81년생 점점 수월한 단계로 접어들다. 행운의 숫자 : 60, 35
戌	46년생 한 발짝 물러서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 58년생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70년생 치밀한 계획 못지않게 진중할 실행이 계속 되어야만 한다. 82년생 표면과 내용이 모 두 완벽해야 의미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6, 23
亥	47년생 작은 현상이니 대범하게 넘길 수 있어야겠다. 59년생 쉬 더운 구름이 쉬는 법이나. 71년생 변명의 순공과 함께 하고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83년생 가을의 결실이 예견되는 관도이니 기쁘게 파종하라. 행운의 숫자 : 88, 3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선!” ☎010-9790-8237

1960년대 향수

세월호 밖으로 나오다

영화 '저 하늘에도 슬픔이' 필름 대만서 발견 ... 디지털 복원



국내에서는 필름이 유실된 것으로 알려진 1960년대 히트 영화 '저 하늘에도 슬픔이'가 대만에서 발견돼 디지털 시네마로 복원됐다. 한국영상자료원은 21일 김수용 감독의 '저 하늘에도 슬픔이'(사진)를 수습해 복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만에서 발견된 영화는 상영을 위해 오리지널 네거티브 필름을 복사한 듀프 네거티브 필름(상영 프린트 원본)이다. 김수용 감독은 이날 마포구 삼암동 KOFA에서 열린 시사회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마치 죽은 친구가 다시 돌아온 듯 감동적"이라고 말했다. 시사회에는 이 영화를 각색한 신봉승, 출연자 최난경을 비롯해 이창호·정지영 감독 등이 참석했다. '저 하늘에도 슬픔이'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쓴 수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신영균·조미령·황정순 등 당대 스타들이 총출동했다. 영화는 극단적인 가난에 시달리는 소년 가장의 이야기를 담담한 필치로 그려 1965년 서울에서만 28만5000명을 동원하며 그해 최고 흥행작으로 떠오른 것은 물론, 신상옥 감독의 '성춘향'(1961·38만 명)에 이어 당시 역대 흥행 순위 2위에 올랐다.

또 이 영화의 히트로 수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잇달아 제작됐으며 세 차체에 걸쳐 리메이크될 정도로 한국영화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 작품이다. 한국영상자료원은 대만영상자료원에 보관돼 중국영화로 분류돼 있던 '추상춘 초심'(秋霜寸草心)이 '저 하늘에도 슬픔이'와 같다는 제보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유실된 김수용 감독의 작품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영상자료원은 "보통 중국어권으로 수출되는 영화는 대체로 중국어로 녹음된 프린트 필름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는 한국어 사운드를 그대로 보존한 채 중국어 자막이 삽입돼 있어 영상뿐 아니라 한국어 사운드와 음악까지 원본 그대로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영상자료원은 이에 따라 지난 3월 대만영상자료원으로부터 필름을 빌려 보존용 프린트(필름)를 제작하고, 영상 및 음향에 대해 기초 복원작업을 거쳐 활용용 디지털 시네마(DCP)를 만들었다. 원본은 다음 달 대만영상자료원에 돌려줄 예정이다. 영상자료원은 다음 달 열리는 '한국영상자료원 창립 40주년 기념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 애도 ... 김연아·하지원도 1억원씩 기부

박재민·정일우 성금 등 스타들 참여 잇따라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7주째, 전국민적인 애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배우 송승헌, 은주완에 이어 '피겨 여왕' 김연아, 배우 정일우, 하지원, 방송인 박재민 등 스타들의 성금 기부가 이어졌다. 김연아는 피해자들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 김연아는 "피해자들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21일 "유니세프 국제친선대사인 김연아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전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1억 원의 기금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연아는 지난 2010년 7월 유니세프 국제친선대사로 임명된 김연아는 그 해 1월 아이티 지진 구호기금으로 1억 원을 유니세프에 기부했었다. 또 2011년 5월에는 세계선수권

준우승 상금을 일본 대지진 피해지 어린이들을 위해 내놓았다. 하지원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하지원의 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는 이날 "하지원이 MBC 월화드라마 '기황후' 막바지 촬영에 임하면서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일우는 현지 구조 활동을 돕고자 재난재해 전문 구호기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이날 오전 3000만 원을 기탁했고, 박재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0만 원을 기부했다.



김연아 하지원

TV 하이라이트

당진 장고항으로 떠나는 여행



한국기행(EBS·밤 9시30분)=시작을 알리는 계절 봄. 봄이 오면 서해포구는 봄을 낚는 어부들로 분주해지기 시작하고, 봄을 즐기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한다. 장고를 낚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당진 장고항. 장고항은 4월이 되면 겨우내 추웠던 어업이 다시 시작된다. 장고항에 제일 먼저 찾아드는 손님도 실치. 실처럼 생겼다 하여 실치라 이름 붙여진 이 물고기는 성질 급하기로는 둘째 가라면 서럽다. 잡히면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회로 맛보기가 어려운 실치는 바로 근처 어장에서 잡아 오는 장고항에서만 회로 맛 볼 수가 있다. 실치와 함께 동면에서 깨어나 찾아오는 손님도 우럭. 우럭 낚시로도 유명한 장고항에서 맛보는 짜릿한 손맛과 말린 우럭으로 끓인 우럭 찜까지. 장고항의 4월을 만나러 떠나보자.

오스트리아 미술사 박물관의 비밀



세상의 모든 다큐(KBS2·밤 11시55분)=세계 유수의 박물관들이 소장한 방대한 컬렉션 중 7~8개의 품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얽힌 기이하고 숨겨진 비밀을 밝히는 '세계 박물관 기행' 5편 오스트리아 미술사 박물관.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미술사 박물관에는 유럽을 500여 년간 다스린 합스부르크 왕가가 수집한 유물과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수많은 합스부르크 왕족들이 매장된 지하실, 현대 과학의 기초가 된 매사냥, 은을 금으로 바꾸려 했던 연금술, 유럽 역사에 영향을 미친 빈의 왈츠, 폭발하는 갑옷, 박물관 최고의 보물을 훔친 도둑 등이 소개된다. 'MUSEUM SECRETS'를 가지고 있는 이 다큐는 지난 2011년 캐나다 방송 4월을 만나러 떠나보자.

선천성 거대결장증 앓는 승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SBS·오후 4시)=오늘도 온 동네를 운동장 삼아 신나게 뛰어다니는 승호. 하지만 그런 승호를 아낀다는 아빠와 할머니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다. 한창 뛰어놀 나이지만 허벅지 불이 있는 배변 주머니가 언제 쏠지 모르기 때문. 그러다 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버리는 것은 물론 배변 주머니도 수시로 확인하고 갈아줘야만 한다. 선천성 거대결장증이라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승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변을 볼 수 없다. 대장에 신경이 없어 대장 운동이 원활하지 못했던 승호는 태어나마자 대장을 들어내고 소장 배 밖으로 꺼내는 인공 항문 수술을 받았다. 그 후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작은 배에 배변 주머니를 달고 사는 승호.